

삼성전자, '뉴 셰프 컬렉션' 공개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가전 결합

프로젝트 프리즘 3번째 라인업 비스포크 개념, 내부까지 확장 용도 따라 수납구조 직접 선택

삼성전자 셰프컬렉션이 '프로젝트 프리즘'을 입었다. 외관뿐 아니라 기능으로도 선택 폭을 넓혔다.

삼성전자는 2일 서울 성수동 레이어 57에서 '뉴 셰프 컬렉션'을 공개하고 공식 출시했다.

뉴 셰프컬렉션은 '프로젝트 프리즘'의 3번째 제품 라인업으로, 삼성전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급 가전 제품 수요층을 분석해 제품을 개발 기획했다.

프로젝트프리즘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가전 제품 개발 비전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분석해 각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그랑데 AI 건조기·세탁기에 이어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 컬렉션에까지 적용됐다.

뉴 셰프컬렉션은 비스포크 개념을 내부에까지 확장한 첫 제품이다. '비스포크 수납존'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수납구조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이재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 서울 성수동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뉴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선택 가능한 스타일은 냉장실 하단을 기준으로 5개다. 195만건의 소비자 식품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분류됐다.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육류·생선을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미트 앤 피쉬' ▲와인과 캔음료 보관 액세서리가 적용된 '와인 앤 치즈' ▲과일과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베지 앤 프룻'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면서도 가정 간편식(HMR)에 최적화된 '패밀리 앤 쿡' ▲건강 보조 식품이나 원물 식재료 보관에 용이한 '헬스 앤 웰빙' 등이다.

우측 하단 공간은 기본적으로 냉동실이지만, 식재료에 따라 냉장고나 살얼음실, 김치냉장고 등으로 온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스포크 수납존 하단에는 공통으로 '셰프 멀티 팬트리'를 적용해 -1도에서 13도까지 용도에 따라 개별 설정 가능하다. 최첨단 기술을 총집합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

프로젝트 프리즘 답게 외부 패널은 선택할 수 있다. 마레 블루, 세라 블랙, 혼드 네이비, 혼드 베이지, 혼드 라이트 실버 등 5개 색상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그룹, AI기술 실제 업무 도입방안 논의

AI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고객에 더 큰 경제·사회적 가치 제공

SK그룹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SK그룹 AI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사용가능한 AI'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SK그룹에서 AI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 더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렸으며,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건설, SK플래닛, SK주식회사C&C, SK매직 등 8개 관계사의 AI 실무자가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씨니'를 통해 일반 구성원 300명도 함께 진행됐다.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으며, 온라인으로 발표 내용을 생중계했다.

대표적으로 SK매직은 렌탈 계약을 AI로 검증해 실수나 고의로 잘못 체결되는 내용을 잡아내는 '매직아이(Magic-Ey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실제 테스트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확률로 비정상 계약을 찾아내



SK그룹 주요 관계사의 인공지능(AI) 실무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온라인 생중계 워크숍에 참석해 업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SK

면서, 회사와 고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웨이퍼 오염 불량을 낮춘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상의 불량 사례를 디지털 이미지로 축적하고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SK건설도 수주 시 사업주와 발주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스케줄을 산출해주는 등, AI를 활용한 건설 기자재 조달 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워크숍은 패널 토의로 마무리됐다. 토의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상황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충을 공유했으며, AI를 통해 회사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재용 기자

아시아나,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기 정비 강화

항공기 중정비 일정 앞당겨 수행
대당 평균 정기점검 항목 10.8건 추가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해 항공기를 비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한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난 5~6월 진행 예정이던 5대의 항공기 중정비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완료했다. 또한 외주 정비 예정이었던 4대의 항공기에 대해 자체 정비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중 9대에 대해 추가 중정비를 수행했으며, 총 27대(연초 계획대비 51.9%)의 중정비를 완료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 A350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2~12월)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주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비 메뉴얼상 정기 점검 항목 이외 ▲주요 전자장치 ▲유압장치 ▲Flight Control 계통 등에 대해 추가 점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비를 강화했다.

항공기 대당 평균 정기 점검 항목 10.8건에 추가 점검 항목 13.8건을 더해, 대당 약 25건의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정기 점검 대비 127.6%의 항목을 추가 점검하는 셈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모비스, 美 실리콘 테크펀드에 250억 출자

미래차 전략에 필요한 우군 확보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요소 기술 전문 테크펀드인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에 총 2000만달러(약 250억원)를 출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

티비티로 대표되는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전략에 필요한 글로벌 우군들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대모비스가 출자하는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가 발굴한 스타트업들은 주로 차세대 센서, 생체인식, 로보틱스 분야의 북미지역 스타트업들이다.

1~2년 내에 상용화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차 시장에서 유망기술로 손꼽히는 분야들이다. 이들 테크펀드는 대학 연구소와 리서치 기관의 유망 기술을 초기에 발굴하는 안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대규모의 지분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해외서 무제한 음성통화 하세요"

U+해외로밍 음성전화 무제한 이벤트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객과 코로나19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을 위해 'U+해외로밍 음성전화 무제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해외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장기 로밍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용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U+로밍 요금제 사용자 당 사용 일수는 지난해 10~12월 평균 5.2일에서 올해 3~5월에는 14일로 늘어났다.

LG유플러스는 78개국에서 고객이

사용기간을 선택해 대용량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전화 수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인 '제로라이트'와 데이터·음성전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제로라이트' 이용자는 7~9월 세 달간 음성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제로라이트 요금제 4종(제로라이트 2GB·3.5GB·4GB·8GB) ▲제로라이트 1020 요금제 4종(3GB·4.5GB·5GB·9GB) 등 총 8종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위니아딤채, 23kg 대용량 드럼세탁기 출시

부피 큰 이불·수건도 한번에 세탁

위니아딤채가 솜이불까지 빨 수 있는 대용량 드럼세탁기를 새로 선보인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1등급을 획득했다.

위니아딤채는 2일 '위니아드럼세탁기' 23kg 대용량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드럼세탁기 라인업 중 최대 용량으로, 부피가 큰 이불이나 수건, 의류 등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넓은 크기를 자랑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도 1등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위니아 23kg 드럼세탁기.

/위니아딤채

있다.

세척력은 '크린스' 기능으로 대폭 강화했다. 세척력에 최적화해 설계된 노즐이 강력하게 물을 분사해 세제 용해도를 높이고 옷감에 세제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돕는 원리다. /김재용 기자